

## 일본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 변제 강제징용 해법에 피해자 강력 반발

정부, '제3자 변제 방식' 공식화  
가해 기업 사죄·배상 빠지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지급  
시민단체 반발...난항 이어질 듯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가해자 직접 사과·변제' 방식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공식화하자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피해자(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변호사는 "법으로 인정된 채권이기에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가 채권의 추심을 반대한다 해도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는 게 유력한 학설"이라고 정부 주장을 해석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발제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해 직접 배상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보상을 정당화할 일본의 호응 조치 수위는 안갯속이라는 게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드러났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 국장은 일본의 재원 기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판결금 지급으로 비칠 수 있는 피고 기업의 직접적 재원 기여를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부금을 받더라도 판결 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묘안'을 찾아야 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를 거론했는데, 일본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우선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사과 수위가 피해자와 국민 감정의 기대를 충족할지 여부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사과"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국연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정부의 발표안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안할 것 같으니 돈이나 받으라는 전박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정부는 결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 지레 안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과 알맹이 없는 교섭을 해온 것임을 드러냈다"면서 "무능력한 굴욕·청탁 외교를 강행하려 하지만 곧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 늘린다

기한내에 처분시 1주택자 간주  
양도·취득·증부세에 일괄 적용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중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증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증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난도 교수 유현준 교수 김정은 교수 서은국 교수 심용환 소장

##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1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 ~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7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못 구해 한숨 ▶6면

복스 -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 ▶14-15면

메시 복귀골에도... 프랑스 축구 뒤끝 적절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신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